

보도일시 (인터넷) 2023. 4. 30.(일) 11:00,
(지면) 2023. 5. 1.(월) 조간

배포 2023. 4. 28.(금) 오후

5월의 해양수산 어벤저스를 소개합니다

- 이달의 수산물·어촌여행지·해양생물·등대·해양유물·무인도서 선정

- ①이달의 수산물로 전복과 기름가자미를, ②어촌안심여행지로 경남 남해 지족마을과 경기 안산 흘곶마을을, ③해양생물로 알락꼬리마도요를, ④등대로 완동항 방파제 등대를, ⑤해양유물로 젓독을, 그리고 ⑥무인도서로 와도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전복, 기름가자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이달의 수산물로 전복과 기름가자미를 선정했다.

전복은 외관상 조개의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달팽이, 소라와 같은 복족강에 속하는 연체동물이다. 달팽이처럼 ‘치설’이라는 이빨이 있고, 머리에 ‘촉각’이라는 더듬이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전복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 무기질 등 영양이 풍부해 ‘패류의 황제’라고 불리며, 삼계탕 및 갈비탕처럼 보양식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기름가자미는 동해안에서 많이 어획되며, 점액공에서 분리되는 점액이 표면에 기름칠을 한 듯이 미끈거리 기름가자미라고 불린다.

기름가자미는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어 회, 찜, 탕, 구이로 즐겨 먹는데, 이 외에 밥과 고춧가루, 엿기름을 넣어 삭힌 식해도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 별미로 꼽힌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맛도 좋고 영양이 풍부한 전복과 기름가자미를 드시며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수산물인 전복과 기름가자미를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com/korfish01?proxyRefer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 경남 남해 지족마을과 경기 안산 흘곶마을

	
지족마을 죽방렴	흘곶마을 갯벌체험

해양수산부는 5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전통어업을 체험하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상남도 남해군 지족마을과 경기도 안산시 흘곶마을을 선정하였다.

지족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바닷물의 빠른 물살을 이용하여 멸치를 잡는 원시어업인 ‘죽방렴’이 유명하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죽방렴은

지족해협에 V자 모양의 대나무로 엮은 밧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물고기가 다치지 않는 생태어업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유·무형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는 어업유산

마을에서는 죽방렴 체험뿐만 아니라 바지락 캐기와 선상낚시도 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방문하기 좋다. 다양한 체험을 즐긴 후에는 쫄깃한 멸치와 아삭한 채소를 양념과 함께 버무린 죽방렴멸치회도 맛볼 수 있고, 남해4경으로 꼽히는 지족해협의 산책로를 따라 여유롭게 걸으며 노을진 하늘과 빨간 창선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

흘곶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언제든 찾기 좋은 어촌마을이다. 대부도의 남쪽 끝,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바지락과 낙지를 잡으며 살아있는 갯벌을 직접 느낄 수 있다. 또한, 돌을 쌓은 후 썰물 때 남은 물고기를 손이나 그물로 잡는 전통어업 방식인 독살체험도 할 수 있다. 인근에는 종이로 만든 가구와 도자기 등의 작품이 전시된 종이박물관, 유리 조형물이 가득하여 사진을 찍기 좋은 유리섬박물관도 있어 마을과 함께 둘러보기 좋다.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전통어업체험을 할 수 있는 남해군 지족마을과 안산시 흘곶마을을 소개한다.”라며, “5월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촌과 바다를 직접 느껴보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

5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알락꼬리마도요



해양수산부는 5월의 해양생물로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를 선정하였다. 알락꼬리마도요는 몸길이가 약 63cm 정도인 도요과 물새로, ‘알록달록한 꼬리를 가진 큰도요’라는 이름처럼 몸과 깃에 황갈색, 흑갈색의 얼룩무늬와 줄무늬가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마도요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배와 날개 아랫면이 하얀 마도요와 달리 배와 날개 아랫면에도 황갈색 바탕에 짙은 줄무늬가 있다. 또한, 머리 길이의 약 3배 정도 되는 긴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로 굽어진 모양의 긴 부리를 활용하여 작은 게 등을 먹는다.

알락꼬리마도요는 주로 5~6월에 시베리아 및 중국 동북부에서 번식하고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에 갯벌이 발달한 서·남해안에서 만날 수 있는데, 최근 갯벌 매립 등으로 인해 볼 수 있는 개체군이 줄어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알락꼬리마도요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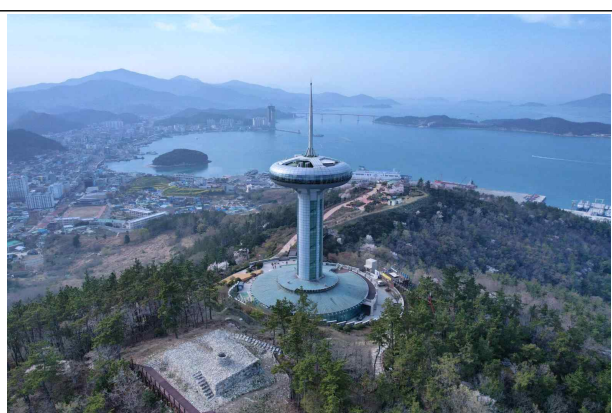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알락꼬리마도요는 긴 여정 중에 중간 기착지로서 우리나라 갯벌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알락꼬리마도요가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등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 방파제등대



완도항 방파제등대



완도타워

해양수산부는 5월 이달의 등대로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완도항 방파제등대’를 선정하였다. 이 등대는 매일 밤 6초마다 두 번 연속 붉은색 불빛을 깜빡이며 완도항을 입출항하거나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완도항 방파제등대’는 1989년 12월에 처음으로 불을 밝혔으며, 완도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1월에 국내 최초의 노래하는 등대로 재탄생하였다. 등대 주변에서는 매일 8시부터 22시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야간에는 등탑 테두리에서 아름답고 역동적인 조명이 반짝이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등대는 모양과 디자인이 독특한데, 사각 파배기 형태로 배의 움직임과 출렁이는 파도를 표현하였다. 2021년 4월에 출시된 ‘등대스탬프 투어 시즌3

(재미있는 등대)’의 주제인 ‘모양과 디자인이 독특한 등대’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여행자들이 이 등대를 찾고 있다.

등대 근처에 있는 완도타워에서는 청산도와 보길도 등 완도가 품은 보물 같은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맑은 날에는 제주도와 거문도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와 특색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해 왔으며, 이달의 등대를 방문한 여행객이 작성한 후기중 우수작을 연말에 선정하여 등대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 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완도군 문화관광 누리집(www.wando.go.kr/tour)에 소개되어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첫독



근현대 | 높이 64.0cm, 입지름 45.5cm 등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해양수산부는 5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젓갈의 숙성·저장 용기인 젓독을 선정하였다.

젓독은 민가에서 젓갈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젓갈 항아리와는 다른 용기로, 선상에서 사용하는 젓갈 생산·발효·유통·저장 용기 등의 역할을 하였다. 새우젓·멸치젓·조기젓 등은 큰 독에, 곤쟁이젓·소라젓 등은 작은 독에 담아 보관하였다. 젓독은 일반 항아리에 비해 크기가 작고 옆구리가 볼록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젓갈을 배에 싣고 팔러 다니는 상인들이 독을 배에 더 많이 싣고, 지게에 옮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젓갈 제조업도 현대화되었지만, 강화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선상에서 젓독을 활용해 젓갈을 담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젓갈은 주로 어패류를 소금 등에 절여 염장한 발효식품으로 독특한 감칠맛과 풍미가 있어 밥반찬과 김치 재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역마다 다양한 젓갈을 만들어 먹었다. 젓갈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조선후기에 고춧가루와 함께 김장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음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유산이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유물을 수집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를 이룰 위해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2021년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바다에 떠있는 달팽이 ‘와도’



해양수산부는 5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에 위치한 준보전무인도서인 ‘와도’를 선정하였다.

고도 약 10m, 길이 약 50m, 면적 5,034㎡인 와도는 멀리서 보면 달팽이가 집을 이고 기어가는 것처럼 보여 ‘달팽이 와(蝸)’, ‘섬 도(島)’ 자를 사용해 와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머리를 들고 헤엄치는 거북이를 닮아 거북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근 마을 주민들은 겹겹이 쌓인 퇴적암이 마치 시루떡처럼 보인다고 하여 시루섬이라고도 부른다.

와도는 본섬인 금당도 서쪽에서 채도와 남북으로 마주하고 있다. 썰물 때면 두 섬 사이를 잇는 암반이 드러나는데, 걸어서 두 섬을 건널 수 있을 정도이다. 와도와 채도는 지질과 지형 경관이 뛰어나고 주위에 해조류가 풍부해 지난 2002년 환경부로부터 특정도서* 제71호로 지정되었다.

*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섬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와도 동쪽 유인도인 금당도는 섬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금당도는 파도와 바람이 만든 신비로운 형상의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해안절벽으로 구성된 금당8경을 비롯해 온금포 해수욕장, 해안 일주도로 등도 품고 있어 2021년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기도 했다.

와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근(금당8경 등) 관광 정보는 완도군 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국일 (044-200-5013)
		담당자	사무관	나유성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어촌마을>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장유경 (044-200-5651)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870)
		담당자	사무관	조용훈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신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임채호 (044-200-5350)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5월
이달의 수산물

전복

Abalone



전복에는 단백질과 타우린, 무기질이 풍부하며
전복죽 외에도 회, 찜, 조림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열량

(Calorie)

91 kcal

수분

(Moisture)

77.2 g

지방

(Fat)

0.7 g

단백질

(Protein)

15.0 g

회분

(Ash)

2.0 g

칼슘

(Calcium)

49 mg

인

(Phosphorus)

141 mg

철

(Iron)

2.4 mg

니아신

(Niacin)

3.5 mg

류신

(Leucin)

866 mg

타우린

(Taurine)

1,799 mg

아르기닌

(Arginine)

1,477 mg

20230501

5월
이달의 수산물

기름가자미

Halibut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가자미는 맛이 달짝하고 고소하여
회, 구이, 찜, 탕, 식해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열량

(Calorie)

83 kcal

수분

(Moisture)

79.4 g

지방

(Fat)

1.5 g

단백질

(Protein)

18.2 g

회분

(Ash)

1.3 g

칼슘

(Calcium)

51 mg

인

(Phosphorus)

191 mg

철

(Iron)

0.6 mg

레티놀

(Retinol)

9.1 ug

류신

(Leucin)

642 mg

오메가-3 지방산

(Omega-3 fatty acid)

401 mg

라이신

(Lysin)

1,231 mg

참고 2

최근 5년간 전복, 기름가자미 생산량 및 수출입량

□ 생산량

(단위 : 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복	20,165	18,550	20,162	23,298	22,167
기름 가자미	3,009	3,499	5,561	5,010	5,155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 2023.04.17.기준

□ 수출·수입량

(단위 : kg)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복	수출	2,379,132	2,174,195	1,914,329	2,135,717	2,580,095
	수입	585,110	796,734	933,519	739,886	908,799
기름 가자미	수출	973,187	377,360	124,137	81,659	129,877
	수입	2,935,563	2,299,503	1,492,404	1,895,775	2,647,034

* 자료 :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2023.04.17.기준

魚食 어식백세 100세

이식백세·이달의·수산물

5월

이달의 수산물

지금 먹어야 더 맛있는
싱싱한 제철 수산물
전복과 기름가자미



전복

‘바다의 황제’로 불리는 전복!

쫄깃한 식감과 비타민,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영양의 보고, 전복!

기름가자미

동해안 깊은 바다에서 잡히는 기름가자미!

비린내가 없고 고소한 맛으로 구이, 조림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 밥도둑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이 나



2023년 05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



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족어촌체험휴양마을(경상남도 남해군)

지족마을에서는 지족해협에서 V자 모양의 대나무로 엮은 발로 물고기를 잡는 원시 어업 방식인 족방렴 체험을 할 수 있다. 족방렴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이며, 아이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 또, 바지락 캐기와 선상낚시도 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방문하기에 좋다. 다양한 멸치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식후에는 남해 4경인 지족해협 산책로에서 창선교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다.

- 체험 : 족방렴 체험
- 먹거리 : 멸치
- 주변 관광지 : 다랭이길, 물미해안도로, 남해 족방렴 관광단지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24 ☎ 055-867-8249 🌐 <http://지족어촌체험마을.kr>



대부도 남쪽 끝, 드넓은 갯벌이 있는 흘곶어촌체험휴양마을(경기도 안산시)

흘곶마을은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언제든 떠나기 좋다. 바지락, 낙지 등을 잡는 갯벌체험과 돌을 쌓은 후 썰물 때 남은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업 방식인 독살체험을 할 수 있다. 인근 관광지로는 종이박물관과 유리섬박물관이 있다. 또, 비타민과 단백질 풍부한 김을 즐길 수 있다.

- 체험 : 갯벌체험, 독살체험
- 먹거리 : 바지락, 낙지, 김
- 주변 관광지 : 유리섬박물관, 종이박물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618 ☎ 032-891-3116 🌐 <http://흘곶어촌체험마을.kr>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다시 도착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알락달록 코트를 두른 여행자

도요과 물새인 알락꼬리마도요는 '알락달록한 꼬리를 가진 큰도요'라는 이름처럼 몸과 깃에 황갈색, 흑갈색의 알록무늬와 줄무늬가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머리 길이의 약 3배 정도 길이의 긴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로 굽어진 모양의 긴 부리를 활용하여 작은 게 등을 주로 먹는다. 최근 갯벌 매립 등으로 도래하는 개체군이 줄어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알락꼬리마도요의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은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주로 시베리아 및 중국 동북부에서 5~6월에 번식하고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에 갯벌이 발달한 서남해안에서 만날 수 있다.



Numenius madagascariensis

알락꼬리마도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국립생태원



해양수산부

KOEM
해양환경공단





완도항방파제등대

이달의 등대로 선정된 '완도항방파제등대'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하며 매일 밤 6초마다 두 번 연속 붉은색 불빛을 깜빡이며 완도항을 일출항하거나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완도항방파제등대'는 1989년 12월에 처음으로 불을 밝혔으며 완도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노래하는 등대로 2009년 1월 재탄생하였다. 등대 주변에서 매일 8시부터 22시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간에는 등탑 테두리에서 아름답고 역동적인 조명이 반짝여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 등대는 사각 파백기 형태로 백의 움직임과 출렁이는 파도를 표현하였으며, '모양과 디자인이 독특한 등대'로서 2021년 4월에 출시한 '등대스탬프 투어 시즌 3 (재미있는 등대)'에 포함되어 있어 등대 여행자도 많이 찾고 있다.

또한 완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완도의 랜드마크인 다도해 일출공원 완도타워 방문을 추천한다. 2008년 준공된 완도타워는 약 76m의 높이로 청산도와 보길도 등 완도가 품은 보물 같은 섬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맑은 날에는 제주도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주변 관광지

- 완도타워
- 완도청해진유적지
- 국립난대안도수목원
- 해양생태전시관
- 어촌민속전시관
- 스마트치유센터
- 금당 8경
- 강보고 기념관



주변 먹거리

완도 전복

깨끗한 바다와 해조류가 풍부한 완도! 완도는 전복의 약 80%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전복 산지이다. 완도 전복은 미세알 함량이 높고 비타민이 풍부하며,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단백질의 청고라 불린다. 옛날부터 최고의 건강식품이자 강장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에는 약 150m에 달하는 전복 특화거리가 있다. 이곳에선 실제 모습과 유사한 대형 전복 조형물을 시작으로 전복과 전복이 섭취하는 해조류의 실화나 효능을 담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며, 다채로운 전복 요리 역시 맛볼 수 있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3. 1. 1. ~ 12. 31.

1/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

포스팅하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포스팅 중, 우수 포스팅을 선정하여 국내 등대 탐방 경비 지원(국민관광상품권 각 50만 원 상당, 5명 내외)

2/ 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2023 시리즈 오픈!

스마트폰에 2019~2023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모아보세요!

- 50번째마다 스탬프를 찍은 참여자와 스탬프 투어 12개소 완주자에게 등대 기념품 증정

※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 및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일시 2023년 5월 4일~7일

장소 해변공원 일원

완도항방파제등대를 포함한 이달의 등대 정보는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관광 정보는 완도군 문화관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05

젓독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https://www.inmm.or.kr>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기증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2



기증대상

해양사, 해양교류(해운·항만),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근현대 | 높이 64.0cm, 입지름 45.5cm 등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5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젓갈의 숙성·저장 용기인 젓독을 선정했다.

젓독은 선상에서 사용하는 젓갈 생산용기와 발효용기, 유통용기, 저장용기 등의 역할을 하였다. 젓독은 민가에서 젓갈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젓갈 항아리와 다른 용기이다. 젓독은 일반 항아리와 비교해서 크기가 작고 폭이 좁다. 크기가 작은 이유는 배에서 젓갈을 담가 민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독의 입은 크기에 비해서 넓고 모양은 원통형 또는 원추형이다. 새우젓·멸치젓·조기젓 등은 큰 독에, 곤쟁이젓·소라젓 등은 작은 독에 담아서 보관하였다. 어선이 기계화되고, 포장 용기도 변화하고, 젓갈 제조업도 전문화되었지만 강화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선상에서 젓갈을 담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유물을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 주고자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국립인천해양 박물관은 우리나라 서해안 어민들의 삶과 문화를 전시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젓독을 비롯한 어민들의 어업도구, 선원들의 항해도구, 어시장과 항만 근로자들의 생활자료 등을 기증받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해양수산부

필드와 시작,
생태와 경관의 보고

무인도서

2023년 5월
이달의 무인도서

월수주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바다에
떠있는
달팽이

와도

고도 약 10m, 길이 약 50m,
면적 5,034㎡

뛰어난 지질과 지형 경관

해양수산부는 2023년 5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에 위치한 준보호무인도서 **와도**를 선정하였다. 고도 약 10m, 길이 약 50m, 면적 5,034㎡인 와도는 멀리서 보면 달팽이가 집을 이고 기어가는 듯한 생김새 때문에 **달팽이와도**(蝸牛島), **섬 도(島)를 사용해 와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머리를 들고 헤엄치는 **거북이를 닮았다** 하여, **거북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근 마을 주민들은 커커이 새인 화적암이 마치 **시루떡처럼 보아, 시루섬**이라고 부른다. 와도는 본섬인 금당도 서쪽에서 채도와 남북으로 마주하고 있다. 생물 측면, 두 섬 사이를 잇는 일련이 드러나는데 걸어서 두 섬을 건널 수 있을 정도이다. 와도와 채도는 지질과 지형 경관이 뛰어나고 천연기념물인 화조룡이가 서식하며, 주위에 해조류가 풍부해 지난 2002년 환경부로부터 **특정도서 제71호**로 지정받았다. 와도 주변의 유인도인 금당도는 섬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2021년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금당도에는 파도와 바람이 만든 신비로운 형상의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해안절벽으로 구성된 금당8경**을 비롯해 은금포 해수욕장, 해안 일주도로 등을 품은 보물 같은 섬이다. 와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근(금당8경 등) 관광 정보는 완도군 문화관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mof.go.kr | blog.naver.com/koreamof | www.facebook.com/mofkor/photos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군 관광정보